새 책

▶왜 우리는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을까(외르크 베르나르디 지음, 이수영 옮김)='내가 정말로 존재할까', '인간이 가장 영리한 동물일까' 처럼 익숙한 것들에 의문을 던지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저자가 권하는 철학하는 법이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다 보면 어느새 생각 체험의 장에 도달해 있을지 모른다.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철학자와 다양한 학자들의 통찰도 엿볼 수 있다. 시금치. 1만5000원.

▶할머니의 요리책(최윤건·박린 지음)=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가 만들어 준 밥을 먹고 자란 손녀가 그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펴낸 책이다. 최윤건 할머니가 만든 김치, 곰국, 장조림 등 30가지 요리의 조리법에 손녀가 그림을 그리고 정겨운 이야기를 더했다. 3년에 걸쳐 담아낸 기록이다. 위즈덤하우스. 1만5000원.

▶제2공항 너머, 시민의 대안(정영신·김학준·이희준·노민규 지음)=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을 향해 던지는 질문의 연장선이다. 과연 제주에 두 개 공항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최적의 입지가 성산읍이 맞는지, 도민의 의견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 저자들은 제주의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과 환경을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굳게 믿는다. 그리고 그 대안들은 도민의 시간 속에서 도민의 결정 속에서만 생명력을 가질 거라고 말한다. 진인진. 1만5000원.

▶예순여섯 명의 한기씨= 2009년 1월 20일, 부당한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하던 용산4구역 철거민 6명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용산 참사'. 이 소설은 바로 그날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의 한가운데로 '임한기'라는 가공의 인물을 들여보낸다. 평범한 대학생이던 한기씨가 왜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잃어야 했는지, 그를 회고하는 인터뷰이 66명의 생생한 목소리가 잊었던 그날의 진실을 드러낸다. 문학동네. 1만2000원.

▶한국의 단군 사묘(윤한주 지음)=제주 출신 국학자가 발로 뛰어 펴낸 단군답사기다. 국내 46곳에 건립된 단군 사묘를 누빈 기록이 담겼다. 선조들이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을 후손에 전하기 위해 건립한 사묘, 그 정보를 한 데 모았다. 광주·전라부터 서울·경기까지 전국 곳곳에서 만난 단군 사묘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도 했다. 도서출판 덕주. 3만5000원.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티머시 스나이더 지음, 유강은 옮김)=전작에서 이미 민주주의 한계와 위기를 경고했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2012년 푸틴의 장기 집권 수립,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기까지의 과정을 훑으며 러시아가 민주주의로 가장한 신권위주의를 어떻게 부활시키는지 치밀하게 기록한다. 부키. 2만원.

김지은기자

4·3에서 온난화가 부를 환경 재앙까지

장일홍 희곡집 '오케스트라의 꼬마 천사들'

월·계간지 발표 6편 수록 "임자를 만나 무대화 되길"

한 편의 연극이 만들어지는 바탕이 되는 희곡. 열악한 제주 연극계에서 이 섬의 사연을 품은 희곡을 꾸준히 발표해온 장일홍 작가가 다섯 번째 희곡집을 냈다. 2년 전, 제주4·3을 그린 장편소설 '산유화'를 묶으며 창작의 영역을 넓혔던 그이지만 다시 희곡으로 돌아와 '오케스트라의 꼬마 천사들'을 발간했다.

이번 창작집에는 계간 '한국희곡', '월간 문학'에 게재했던 6편이 실렸다. 예수, 성모마리아 등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작품들이다.

'인연의 굴렁쇠야, 돌고 돌아 어디로 가느냐'는 작가가 오래 전 읽었던 법정 스님의 '업(業)'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85호 크레인'은 노동 현장의 비리와 모순을 고발하고 노동자들의 인간 승리를 증언한다. '삼십년 후'는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환경 재앙을 다루고 있다.

제주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다. '꽃 속에 숨겨진 시간'은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4·3의 상처에 눈길을 뒀다. '구럼비가 운다'는 강정 해군기지 문제를 들여다봤다. 작가는 해군기지가 입지 선정의 오류,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참여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 등을 드러낸다며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이 작품을 썼다고 했다.

표제작은 실화를 토대로 했다. 바이올리니스트 용재 오닐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로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꾸리고 공연하는 과정을 통해 역지사지의 태도와 음악의 위대함을 그려냈다. 작가는 특히 '오케스트라의 꼬마 천사들'이 뮤지컬로 만들어지길 소망했다.

언젠가 이 작품이 탁월한 안목을 지닌 연출자, 기획자, 제작자 같은 임자를 만나 빛을 발할 거라 믿는다는 그는 제주 연극판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놨다. 제주근현대사를 담은 '붉은 섬'이나 '이어도 간 비바리'가 오히려 제주보다 서울에서 먼저 공연되며 주목받았던 일을 꺼낸 그는 "동네 심방 알아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제주 극단들이 가까운 곳은 놔두고 자꾸만 육지 작가 작품을 올린다"며 "제주에서 내 작품을 공연하겠다면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연극과인간. 1만6000원.

진선희기자

한식 역사 곳곳의 오류, 과학으로 바로잡다

과학자 권대영의 '한식 인문학'

"오늘은 무엇으로 밥을 먹을까?" 매일 같이 듣고 하는 이 말엔 한식의 다양성이 녹아 있다. 주식인 밥에 다양한 찬을 곁들어 먹는 한끼. 하나의 음식을 먹는 서양 문화와는 확연히 다르다. 누구나 입맛과 기호에 따라 젓가락 선택권을 보장 받는 한식의 다양성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수십 년 동안 생명과학과 식품과학을 연구해 온 권대영 박사는 과학의 눈으로 한식을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한식의 역사 길목 곳곳에 오류가 있다고 말한다. "고추는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 "닭도리탕은 일본 말에서 온 잘못된 말이다"처럼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설'에 반기를 든다. 거기에 더 나아가 오류를 바로 잡을 데이터를 들이댄다. '고추 일본 전래설'의 오류를 증명하기 위해 옛 문헌부터 전 세계 전파된 고추 품종 이야기까지 되짚는 식이다.

과학자인 저자가 한식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분명하다. 잘못된 정보가 음식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추 임진왜란 전래설은 고추의 역사만 왜곡한 데 멈추지 않았다. 고춧가루, 고추장이 들어간 한식 문화의 역사까지 축소 또는 왜곡하거나, 그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우리 고추가 없으면 김치와 고추장이 발견될 수 없듯이, 비빔밥과 닭도리탕, 떡볶이도 고추장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는 음식들이다."

저자는 한식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서 오천 년을 이어 온 우리 음식문화의 탄생과 한식의 본질, 맛 등으로 이야기를 넓혔다. 밥상에 계절과 삶을 담아내고, 건강한 조리법을 이어온 옛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한식의 미래도 꺼내놓는다. 그리고 말한다. "한국 밥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건강한 식단이자 건강한 문화임은 분명하다. … 개인 선택권이 보장되고 초열결 되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는 한식이 개인 맞춤형식품에 가장 적합한 식품이 될 것이다." 헬스레터. 3만5000원.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이 책 박정근 사진집 '입도조'

'박정근의 '입도조-탑동매립지' (2019).

"본디 제주 토박이란 게 있었던가"

2010년 전후 이주 열풍에 섬에 첫 정착한 젊은 조상 무표정과 어울린 제주풍경

제주에는 '정착주민의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다. 여기서 정착주민은 '제주도로 이주해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했다. '예비정착주민'은 '제주자치도 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제주자치도로 이주해 살기를 희망하여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라고 쓰여있다. 2014년 제정해 일부 개정, 전부 개정을 거치며 오늘날에 이른 조례다.

이 조례의 탄생 배경엔 제주로 밀물처럼 밀려드는 젊은이들이 있었다. 근래 잠시 주춤해졌다고 하나 '제주 올레길' 열기 등을 타고 뭍에 사는 이들이 무던히도 제주 바다를 건너왔다. 그 물결 속에 제주 원주민과 외지인의 어울림을 걱정하며 정착주민 조례가 만들어졌다.

박정근 작가의 사진집 '입도조(入島祖)'는 그들의 표정을 담고 있다. 2010년 전후로 제주로 들어온 사람들이 사진집의 주인공이다. 둘이거나 셋, 때로는 혼자인 그들이 개발 바람이 불어대는 제주 풍경이 뒤섞이며 오늘날 이 섬의 얼굴을 드러낸다.

입도조는 섬에 처음으로 정착한 각 성(姓)씨의 조상을 이르는 말이다. 도시의 생활공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겠다는 이들은 제주에 와서 농사를 짓거나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창작 활동을 하며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박 작가는 이들 입도조를 불안계급으로 이해한다. 원하는 생을 살기 위해 입도한 이들이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실제 제주살이 3~4년을 고비로 이 섬을 떠나는 입도조들이 적지 않다. 거기엔 '육지것'에 대한 섬의 시선도 작용한다.

제주 입도조 중에서 한 세대를 넘기며 살아갈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나 박 작가는 이물감을 내뿜고 있는 입도조들이 언젠가 "제주풍경에 붙박이로 스며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묻는다. "제주의 자연이건, 사람이건, 혹은 조형물이건, 본디 제주 토박이라는 것이 있었던가." 40여 점의 사진 앞에 박정근 작가를 시작으로 이나연 미술평론가, 한진오 극작가, 남수연 지리학박사의 글이 덧붙여졌다. 켈파트프레스. 1만8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